

방송통신연구

2024년 여름호

연구 논문

- VR/HMD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수용 저항에 미치는 요인
: 혁신 저항, 리스크, 대체·보완 가능성 요인을 중심으로
/ 김 현·최중환
- 부모의 미디어 중재 방식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미디어 교육 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 김 현
- 국내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이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채널 브랜드 자산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 우형진
- 유료방송 시장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채널 계약 및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 사업자 인식을 중심으로
/ 정영주·박성순
- 생성형 AI 콘텐츠 수용 및 거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AI 커버 음악을 중심으로
/ 최재서·민 영
- “입틀막”과 “보도지침”
: 방송 심의 보도의 후견주의 의제 연구
/ 허만섭

부 록

- 언론 관련 학회 논문 작성 규정 통일안
- 『방송통신연구』 논문 공모

VR HMD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수용 저항에 미치는 요인

혁신 저항, 리스크, 대체 · 보완 가능성 요인을 중심으로*

김 현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최종환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기술개발팀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VR HMD 기반 메타버스의 저조한 이용률에 주목했다. 연구에서는 VR HMD 기반 메타버스의 이용자 저항 인식을 살펴보고 학술적·산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독립 변인은 혁신 요인(상대적 이점, 지각된 합치성, 지각된 복잡성)과 리스크 요인(신체적 리스크, 재무적 리스크), 대체 보완 요인(대체 가능성, 보완 가능성)을 설정했으며, 매개 변인으로, VR HMD 기반 메타버스 혁신 저항 의도, 종속 변인으로 이용 의도를 투입했다. 분석 결과, 지각된 복잡성과 대체 가능성, 보완 가능성은 VR HMD 기반 메타버스 저항 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 의도는 VR HMD 기반 메타버스 이용 의도에 부(-)적 영향을 주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VR HMD 기기의 복잡성을 낮추고, 간편한 기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용자의 혁신 저항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 메타버스 서비스, VR HMD, 혁신 저항, 리스크, 대체 및 보완 가능성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방송학회-GS리테일 신진학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kimhun6301@hanyang.ac.kr, 제1저자

*** jhlove2412@silgam.or.kr, 교신저자

부모의 미디어 중재 방식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교육 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김 현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어린이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량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하고 교육하는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미디어 중재 방식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어린이 미디어 사용에 관한 설문 데이터(2차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정제하여 총 484명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부모의 중재 유형으로 감시, 적극적 공동 이용, 기술 활용, 제한 유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중재 유형이 미디어 자기통제성을 매개하여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재 유형 중 제한형을 제외한 모든 중재 유형이 미디어 자기통제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 변인인 미디어 자기통제성은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로 부모의 미디어 교육 참여 유무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가 미디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 중독 변인에 대한 미디어 자기통제성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미디어 교육 유무, 부모의 중재 전략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 자기통제성, 미디어 이용 중재, 감독형 중재, 대화형 중재, 기술형 중재, 제한형 중재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4-1765).

** kimhun6301@hanyang.ac.kr

국내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이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채널 브랜드 자산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우형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이 연구는 국내 지상파 방송 4사(KBS, MBC, SBS, EBS) ESG 경영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채널 브랜드 자산과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채널 브랜드 자산이 ESG 경영 평가와 뉴스 신뢰도 사이에서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환경(기후 변화, 폐기물 처리), 사회(노동 인권,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미디어 다원성), 지배 구조(윤리 준법 경영, 투명 경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들이 지상파 방송사 채널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에 각각 다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각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 평가는 뉴스 신뢰도에 차이 나는 정(+)적 혹은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각 지상파 방송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내 지상파 방송사 ESG 경영의 세부 요인들 중, 환경(E) 영역에서 기후 변화, 사회(S) 영역에서 미디어 다원성, 시청자 보호, 지배 구조 영역에서 윤리 준법 경영, 투명 경영 요인이 채널 브랜드 자산과 뉴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었다. 각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 브랜드 자산은 시청자의 ESG 경영 평가와 뉴스 신뢰도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각 지상파 방송사가 ESG 경영을 추진할 경우, 각사의 정체성과 결합한 형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방증해 준다.

주제어 | ESG, 채널 브랜드 자산, 뉴스 신뢰도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됨(HY-2022-3280).

** hyungjinw@hanyang.ac.kr

유료방송 시장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채널 계약 및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 사업자 인식을 중심으로*

정영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이 연구는 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정책 성과를 살펴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계약 및 대가 산정 관련 다수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사업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림자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2012년 이후 유료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미디어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되거나 규제 강화 차원에서 개정 혹은 신규 제정된 다수의 가이드라인들은 사업자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하면서 구속력 있는 규제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편법의 등장과 시장 왜곡, 시장 자율성 저하와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업자들의 비자발적인 순응 속에 사업자 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시장 내 불신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자 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과 함께 '원칙 중심 규제', 'comply or explain'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기반한 사후 규제 강화로 정부 개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 시장 내 그림자 규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 당국의 유료방송 시장 규제 철학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케이블TV만 있었던 시장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다변화되고 콘텐츠 역시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부합하는 정책 철학에 기반하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그림자 규제, 가이드라인, 유료방송 시장,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이 논문은 한국방송학회-공영홍소핑 중견학자 연구자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jouny@empas.com, 제1저자

*** sspark@pcu.ac.kr, 교신저자

생성형 AI 콘텐츠 수용 및 거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I 커버 음악을 중심으로*

최재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다양한 창작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는 AI 기기 수용(AI device use acceptance, AIDUA) 모델을 확장하여 AI 커버 음악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 및 거부 요인을 탐색했다. AI 커버 음악 감상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N = 295$),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평가, 감정, 수용 및 거부로 이어지는 단계별 과정을 분석했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AI 커버 음악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지각, 유희적 동기 및 지각된 의인화가 높아질수록 해당 콘텐츠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과 기대는 만족감을 높이고 불편한 감정을 감소시켰다. 반면, AI 커버 음악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불편한 감정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만족도는 AI 커버 음악에 대한 수용 의도를 높이고 거부 의사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불편함은 콘텐츠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의향을 높였다. 향후 AI 기반 콘텐츠 수용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 생성형 AI 콘텐츠, AIDUA 모델, 수용·거부 요인, AI 커버 음악

* 이 연구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설문 조사 지원과 4단계 BK21 사업 지원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IITP-2024-2020-0-01749).

** mint_choi@korea.ac.kr, 제1저자

*** ymin@korea.ac.kr, 교신저자

“입들막”과 “보도지침”

방송 심의 보도의 후견주의 의제 연구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본 연구는 방송 심의 관련 보도가 후견주의를 의제화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기사 5533건의 언어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보수 정권이 다수 심의위원을 위촉한 기간에 진보 매체 사설은 “입들막” 같은 핵심어로 방송 심의의 보수 정권 편향을 자주 보도해 후견주의 의제를 설정했다. 진보 정부 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기 보수 매체 사설은 “보도지침” 등의 용어로 방송 심의의 진보 정권 편향을 의제화했다. 양측 매체는 같은 성향 정권 시기엔 방송 심의의 편향성을 소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의제의 차단을 지향했다. 보수·진보 매체는 이렇게 정권 성향에 따라 방송 심의의 편향성에 대해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의제 차단(agenda cutting)’을 교대로 수행했다. 본 연구는 ‘방송심의위원들이 정치권 후견인의 이해관계를 심의에 반영하는 것’을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로 규정한다.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 문제는 방송의 편향성, 방송 심의의 편향성, 방송 심의 보도의 편향성 문제라는 다층 구조였다. 본 연구는 방송 심의의 후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정치권 후견인의 방송 통제’뿐 아니라 ‘미디어의 양극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주제어 | 방송 심의 보도, 후견주의, 편향성, 공정성, 의제 설정 차단